

사례 ①

디지털 테마 컬렉션 모바일 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모델 구축 —

허 종 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전략팀장
jsheo322@korea.kr



들어가며

디지털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 요구 증대와 디지털 출판물의 등장, 미디어서비스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도서관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의 활용 강화가 필요하다.

강력한 정보력과 네트워크 파워를 가진 모바일 세대 등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9년 11월, 애플사의 아이폰이 국내에서도 출시되었다. 이 아이폰 발매로 인하여 국내 휴대폰 시장에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무선인터넷 시장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국내 통신사업자인 KT가 아이폰을 시판한 후 불과 4개월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옴니아2 등 후발 가입자까지 더하면 스마트폰 가입자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로 인해 관련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붐은 물론이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 광고, 위치기반 서비스 등의 활용에 따라 생활 방식이 변화

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에 스마트폰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 스마트폰 시장도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와 단말기 제조사의 스마트폰 생산 확대, 그리고 통신서비스 제공자 요금 할인 정책 등으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고,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는 데스크탑 PC보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웹에 접속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및 문화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특화된 전문자료를 대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테마 콘텐츠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하고, 원문DB 등 디지털 자료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웹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5월에 물리적 공간인 '정보광장' 과 가상공간인 '디브리리 포털' 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760만건의 정보자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저작권이 보호되는 자료는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도서관에서 보유한 다양한 정보자원에 대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서관 소장자료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테마 컬렉션(<http://collection.nl.go.kr>)과 모바일 세대의 등장에 따른 모바일 웹(<http://m.nl.go.kr>) 서비스를 금년 5월 25일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특화된 자료에 대하여 활용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한글판 소설인 '딱지본 소설' 과 '동의보감' 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콘텐츠를 구성하여 원문정보 등과 함께 제공하며, 이러한 테마 컬렉션과 도서관 이용안내 정보를 스마트폰에 최적화하여 모바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원문으로만 제공되던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기존의 어려운 고전 형태를 탈피한 딱지본 소설, 동의보감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 및 구성 등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테마 콘텐츠를 확보하였고, 지속적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딱지본으로 보는 한글판 소설' 에서는 국문소설류를 신식활자기로 찍어 발행한 딱지본 소설 ('구활자본 소설' 이라고도 함.)을 대상으로 『전우치전』, 『사씨남정기』, 『숙영낭자전』 등 50선을 선

정하여 ‘영웅군담소설’, ‘가정가문소설’, ‘사회세태소설’, ‘추리탐정소설’, ‘애정소설’ 로 구분하여 재미있게 구성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소설을 선택하여 내용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딱지본 소설 클릭션 구성

“세계인의 의서 동의보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 책에 대한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관련 테마와 함께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의보감 총 5편 25책의 주요 내용, 저자, 세계 속의 동의보감 및 동의보감 건강법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2〉 동의보감 클릭션 구성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각 시설(본관, 디지털도서관, 야간도서관, 장애인 정보누리터)에 대한 이용안내 및 위치, 교통정보 등을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상세 이용안내, 신착자료 안내, 행사정보 안내, 도서관 자료 찾기 기능 등을 추가로 구축하여 2010년 7월 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시범 구축으로 도서관 이용안내 정보와 소장자료를 활용하여 저작권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테마 컬렉션을 구축하여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다양한 컬렉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서비스 모형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 도서관 안내 목록 ▲ 디지털 도서관이용안내 ▲ 위치와 교통안내

〈그림 3〉 도서관 이용안내 서비스 구성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금년 7월부터 아이폰을 통하여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보물급 2종(목장지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도) 등 고지도 10종에 대하여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하여 고지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다. 구글맵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고지도를 중첩시켜 비교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고지도 이미지에 투명도를 주어 현대지도와의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서비스는 위치별 보기, 고지도 보기, 테마별 보기로 구성되며, “위치별 보기”는 현대지도에 중첩된 고지도 위에 사용자가 현재 접속되어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스마트폰의 GPS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가 현대지도의 지역을 중첩되어 있는 고지도와 비교되면서 현재 위치의 옛 지명이나 옛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고지도 보기”는 고지도들을 설명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대 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고지도를 중첩시켜서 보는 내용은 같으나, 고지도 목록과 해



▲ 고지도 어플 메인 ▲ 고지도 서비스 메뉴 ▲ 위치별 고지도 보기
 ▲ 고지도 목록 보기 ▲ 선택한 고지도 보기 ▲ 테마별 고지도 보기

〈그림 4〉 고지도 서비스 구성

설 요약이 나오면서 사용자들이 선택하여 고지도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마별 보기는 독도, 새만금 등 지역에서 유명하거나 이슈가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현대지도 좌표(위도와 경도)를 읽어서 고지도를 그 위치에 맞게 중첩시켜 그 지역의 위치와 고지도의 위치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였다.

■ 나가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모바일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범위 및 내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향후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의 선도적 입장에서 콘텐츠 확대 및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

2010년 하반기에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 검색 및 GPS 지도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보유한 가장 가까운 도서관 안내, 이용예약 등 도서관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사만화의 역사로 살펴본 시대상', '도서의 변천사', '소장문화재' 등 일반인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손안의 도서관' 구현을 위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디지털 컬렉션과 모바일서비스를 매개로 한 다양한 매체와 주제별 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지능화 된 검색 기능과 고차원적인 개인화 기술을 활용하고, 특정 디바이스에 종속이 되지 않는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서비스로 나아가 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의 이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도서관의 대출과 반납을 단일 인증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대출서비스와 연계하여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이동 중이나 여행 중에 전국 어느 도서관에서나 대출과 반납을 자유롭게 가능하게 하고, 더 발전하여 도서관의 온·오프라인에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치기반 서비스, 증강현실 등의 다양한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자 현재 위치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전적 자료를 표현해 주고,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모바일 서비스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에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